

개에 있어서 맥락막총의 유두종과 관련된 Paradoxical Vestibular Syndrome

8년령의 Cocker Spaniel종이 급작스러운 운동부족과 두부가 좌측으로 기울어진 한달후에 Saint-Hyacinthe의 수의학교에 진료의탁되었다.

이 개는 오른쪽으로 기대면서 벽 가까이로 걷는 경향이 있었다. 사지 근육조직의 긴장도와 자세반응은 정상이었으며 왼쪽 슬개골 반사는 간대성(間代性)을 보여 주었다.

전정(前庭)기관의 발병이 보통 동측성(同側性 患側이 같은쪽)인 것과 같이 이 증상들은 병변이 중심전정(中心前庭)기관의 왼쪽편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신생물(新生物, neoplasms)을 포함한 "Canine geriatric vestibular disease" 전정(前庭)기관의 사고, distemper 그리고 어떤 다른 염증과정과의 감별진단이 실시되었다.

두개골의 측면과 복배면의 방사선 촬영은 뚜렷하게 없었으며 뇌척수액의 분석과 혈청의 생화학적 분석결과는 정상이었다. 혈상도는 절대적인 백혈구수의 증가가 없이 약간의 호중구혈증을 나타내었다. 환축은 집에서 14일간 Chloramphenicol 600mg을 TID로 치료하였으며 5mg의 prednisone을 BID로 7일간 그리고 10mg의 prednisone은 SID로 14일간 2일 간격

으로 한번씩 치료하였으나 한달후에도 임상증상의 변화가 없어 안락사시켜 부검하였다.

특기할만한 병변은 두개강에 있었다.

오른쪽 제4 뇌실(4th ventricle)의 맥락막총에 작은 암적색의 유두상 물질이 뇌교(腦橋)와 소뇌를 압박하고 있었다(Fig.1).

현미경검사는 세포가 커지고 단일형태성인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맥락막총의 모양을 지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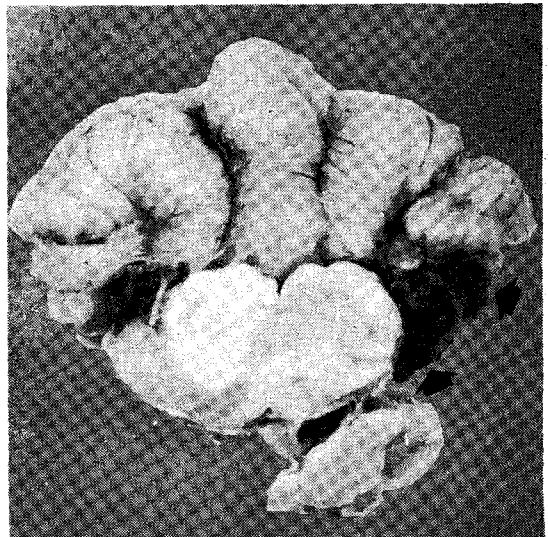


Fig. 1. Appearance of the tumor (arrows), compared with the normal choroid plexus on the left side.

상피세포종양이 나타났다(Fig.2). 핵분열은 보이지 않았으며 주위조직에 침윤은 없었다. 석회화(石灰化)된 작은 조직 부위가 종양내에 있었다. 맥락막층의 유두종은 사람과 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다.

2년령에서 13년령(보통 6년령)의 개에서의 발생경우가 보고된바 있다. 맥락막층의 유두종과 관련된 임상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상부운동의 Neuron의 tetraparesis, 운동실조, 평행감각의 상실, Nystagmus, Cranial nerve의 장애 등의 증상이 있을수 있다. 따라서 vestibular syndrome의 원인중에서 제 4 뇌실의 맥락막층의 유두종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개에 있어서 두부가 좌로 기울것은 중심전정(中心前庭) 병변이 왼쪽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 준다.

어쨌든 뇌교(腦橋)와 소뇌의 뇌각의 왼쪽에는 병변이 없었다. 따라서 이것은 Paradoxical vestibular syndrome의 경우이다.



Fig. 2. Microscopic appearance of the neoplasm (lower right). H & E stain; ×100

이 역설의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

(편집부 : 外誌에서)

●신간안내●

獸醫臨床病理

韓弘栗, 李政吉, 李昌雨 編著

- 384P 4 × 6倍版
- 定価 9,000원

送料 500원

機電研究社